

취업 성공 스토리

농협경제지주

김승호 / 동물자원학부

합격기업 농협경제지주/축산물 유통

기본스펙 학점 : 3.9 / 토익 : 없음

대학생활

인턴 없음

현장실습 없음

공모전 10회 이상 입상

봉사활동 없음

아르바이트 없음

기타 학장상(졸업), 특허출원 3회, 조기졸업

자격증

전공 축산기사

일반 워드프로세서1급

대학생활 스토리

재수생활을 마치고 성인이 되어 입학한 대학교는 저에게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충분할 정도로 재미있는 곳 이었습니다. 학과 생활을 하며 놀다 보니 어느새 대학교에 입학할 때 다짐했던 공부에 대한 의지는 저 멀리 떠난 이후였습니다. 1학년 1학기를 평균 평점 2.5로 마무리 하고, 노는 것에도 질린 저는 대학교 공부가 저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고 어느새 수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수를 시작하였지만 실패한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어 반년 동안 일을 한 후 저는 군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딱히 할게 없다는 것을 알아챈 저는 3년만에 1학년 2학기로 다시 학교에 복학하게 됩니다. 이미 친했던 친구들은 고학년에 가 있거나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학과 생활에 참여하지 않으며 대학교 내에서 혼자 지내는 나날이 지속될 무렵, 저는 대학생이 된 이상 적어도 공부는 하고 학점은 잘 챙기자 라는 일념 하나에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학점을 이수하여 조기졸업을 해 남들보다 늦은 제 대학생활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념으로 재수강 없이 결국 평균 평점 3.9까지 학점을 끌어올리고 조기졸업을 하며 운 좋게도 졸업 시 학장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저는 항상 지루한 나날 이었습니다. 대학교 밖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쾌활한 성격인 제가 대학교 내에서 조용히 다니는 것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아리를 찾고 싶어했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동아리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 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즐기는 동시에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를 원했고, 저의 착오로 신소재공학부 학생들이 듣는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때 만난 신소재공학부의 어떤 선배님 에게 이러한 고충을 털어 놨더니 돌아온 대답은 전남대학교 창업동아리연합회에 들어가보지 않겠냐 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업동아리 연합회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 창업 또는 공모전에 쓰이는 코딩, 디자인, 3D설계 등 농생대 생인 저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 이었으며, 다른 동아리 동기들은 대부분 공대생 또는 인문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모전에 이미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교육을 듣고 저의 외향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을 사귀며 도움을 얻다 보니 어느새 모든 공모전을 팀장의 자격으로 10회 이상 공모전 입상과 3회의 특허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 공대생보다 코딩이나 설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전반적인 팀의 조율, 업무의 조율과 사업계획서 PPT제작, 발표, 기획, 디자인에 집중하여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아리에서 쌓은 능력은 공모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생활에서 해야만 하는 팀 프로젝트와 글을 서술하는 전반적인 능력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해 시작한 동아리 생활이 어느새 대학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저의 취업 또한 이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공모전에 나가고 학과 생활도 점점 친구들이 늘어나 같이 공부를 하며 즐겁게 지낼 무렵 저에게는 졸업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며 취업이라는 큰 벽 또한 가까워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강점은 학장상을 받으며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한 것과 다수의 공모전 입상 그리고 축산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반면 취준생이 기본으로 챙겨야 하는 어학 성적과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한국사, NCS공부 같은 것은 전무하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슬슬 기본을 챙겨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어떤 회사의 공고를 우연히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원서접수가 4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바로 카페로 달려가 인생 첫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고 바쁜 저는 자기소개서를 따로 옮겨 놓을 시간도 없이 입사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 3달 뒤, 저는 농협경제지주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지원경험

농협경제지주에 대하여

농협은 광범위한 조직이며 그만큼 법인 마다 행하는 업종과 직무도 다양합니다. 특히 농생대생이라면 그 어떤 전공과 공부를 하더라도 농협에 어울리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농협은 크게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금융지주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좀더 세분화 하자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8대법인, 자회사 및 계열사, 지역 농축협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서술했듯이 농협의 모든 경제사업을 담당하며 산하에 있는 자회사와 계열사를 총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8대법인 중 하나입니다. 크게 농업지원/축산지원으로 나뉘게 되며 광범위한 조직이다 보니 농생대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학과를 포괄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서류전형(자기소개서)에 대하여

자기소개서란 그동안 자신이 밟아온 길을 서술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단점을 숨기고 장점은 부각하여 자신을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사회적 트렌드와 자신이 지원한 회사와 업무에 맞는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또한 자신이 그동안 해온 것이 없다면 서술하기 힘에 부칠 것입니다. 결국 블라인드가 대세인 요즘의 취업 시장에서 학교와 학점의 의미는 퇴색되어 갈 것이며, 취업시장의 스펙이 상향평준화 되어감에 있어 자격증, 어학 성적과 같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사람이 본다면 당연한 스펙들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3시간 30분 정도 작성하였으며 일체의 첨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 3시간 30분동안 쓴 자기소개서로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행운이 따랐지만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던 핵심은 제가 남과 다른 점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블라인드로 서류와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온 명확한 자료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학장상을 받으며 조기졸업 한 부분, 다수의 공모전을 수상한 것, 원예고등학교로 스마트팜 교육을 간 부분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들과 다른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지루한 내용 보다는 남들과 다른 특색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짧은 시간 동안 써 완성도가 떨어지는 내용 이였겠지만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인적성 시험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기업과 대기업은 인적성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농협에 한정한다면 위에 언급한 8대법인은 행정고시 1차시험을 기본으로 한 피셋형 NCS를 치루게 되며, 지역농축협은 모듈형 NCS를 치루게 됩니다. 모듈형은 단기간에 준비가 가능하나 피셋형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를 해야하며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 이해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신이 지원하게 될 회사의 인적성 시험 스타일을 명확히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며, 평소 언어적 능력과 이해력을 길러 놓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평소 대학생시절의 공부량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서류와 면접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시절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지원경험

면접에 대하여

농협경제지주의 경우 1차 인성면접 2차 토론면접 3차 직무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평소 토론과 발표 등에 익숙하여 임기응변이 강한 스타일은 회사와 업무의 내용을 숙지하고 최대한 그에 맞는 사회적 트렌드 또는 용어를 최대한 많이 읽은 후 그때마다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토론과 발표 등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내용의 정확한 암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기응변이 부족하다면 결국 말이 꼬이게 되며 이는 분명 면접관 입장에서는 노력 부족이라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과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면접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것이며 그만큼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며

제 주변을 보면 대다수의 친구들은 취업준비를 하며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뚜렷한 회사를 바라보며 그에 맞는 공부와 추가적인 어학 및 자격증을 취득하며 취업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여 글을 쓰는 것에 주저함이 있었지만 앞으로 대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경험과 스펙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저와 같이 어학, 자격증이 없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쓰면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대학생활 내내 친구들과 이랑 노는 것을 일 순위로 생각하고 지냈으며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 또한 모범생 보다는 놀기 좋아하는 친구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나 공모전 등 주어진 일이 있다면 항상 최선을 다해 밤을 새며 해 나가며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도 놀 때는 미친듯이 즐기며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